

전남광주 의용소방대원들, 거제 수해복구 ‘구슬땀’

선창마을서 진흙 퍼내고 배수로 정비...3가구 복구 지원
소방본부와 상황 공유...“피해 주민 일상회복 도움 되길”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 수해 현장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도 상황을 공유했으며, 직원 1명이 현장에 동행했다. 한편 의용소방대가 재난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동 차량과 장비 등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나왔다. 최낙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권역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실의에 빠진 거제시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작은 힘이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의 손길이 피해 주민들이 용기를 얻고 일상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출동할 경우 지자체에서 이동 차량 등을 지원해준다면 더 많은 대원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 수해 현장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도 상황을 공유했으며, 직원 1명이 현장에 동행했다. 한편 의용소방대가 재난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동 차량과 장비 등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나왔다. 최낙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권역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실의에 빠진 거제시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작은 힘이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의 손길이 피해 주민들이 용기를 얻고 일상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출동할 경우 지자체에서 이동 차량 등을 지원해준다면 더 많은 대원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권역 의용소방대연합회 대원들이 지난 21일 거제시 지세포 선창마을에서 삼과 마대자루, 손수레를 이용해 진흙과 돌을 퍼내고, 막힌 배수로를 정비했다.

며 얼음물을 건네기도 했지만, 대원들은 준비해 온 물과 음료가 있다며 사양하고 복구 작업을 이어갔다. 전남 의용소방대원들의 수해 복구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원들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구례를 찾아 3일간 복구 작업에 참여했으며, 지난해에도 담양·무안·함평 등의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활동을 펼쳤다. 대원들은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배수로 정비와 마당 청소, 토사 제거 등을 나뉘 맡아야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거제 의용소방대와

현장 상황을 협의한 뒤 지세포 선창마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도 상황을 공유했으며, 직원 1명이 현장에 동행했다. 한편 의용소방대가 재난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동 차량과 장비 등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나왔다. 최낙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권역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실의에 빠진 거제시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작은 힘이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의 손길이 피해 주민들이 용기를 얻고 일상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출동할 경우 지자체에서 이동 차량 등을 지원해준다면 더 많은 대원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켄텍 출신 최어진 박사, 국립목포대 교수 부임

내달 전기공학과 조교수로...차세대 전력망 연구 성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가 배출한 박사급 인재를 국립목포대학교 교수로 부임을 앞둔 주목받고 있다. 켄텍은 에너지공학부 차세대그리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최어진 박사(사진)가 다음달 국립목포대 전기공학과 조교수로 부임한다고 24일 밝혔다.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켄텍 에너지공학부에서 김승완 교수의 지도를 받아 올해 2월 박사학위를 받았다. 재학 기간 송전계통 계획·운영을 비롯해 전력시장 설계,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 등 전력계통 기술과 에너지정책을 아우르는 연구를 수행했다.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AC·DC 전력망

에서 분산에너지의 다수 임지 시나리오 기반 편익 산정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분산에너지의 입지에 따른 경제적·계통적 편익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에너지 분야 주요 국제학술지에도 관련 연구 성과를 다수 발표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현 National Laboratory of the Rockies)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연구 경험을 쌓았다. 현재는 켄텍 에너지정책연구소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정량적 분석과 모형 개발을 기반으로 에너지정책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제도



고흥군이 최근 군청 팔영산출에서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 우수상 수상을 기념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흥군, 일자리대상 ‘우수상’ 2년 연속 수상

우주항공·드론·스마트팜 일자리 정책 호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최근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에서 2012년부터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알리고 지역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심사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도 부서 간·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 점과 그 성과가 실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고용 활성화로 이어졌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특히 우주항공·드론·스마트팜 등 3대 미래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자립형 사회적 경제 기반 마련,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유기적 협력, 공헌형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며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공영민 군수는 “2년 연속 우수상 수상은 다각적인 일자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성과다”며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인프라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군민들의 일자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흥상생일자리센터와 일자리 홈페이지를 연계한 통합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찾아가는 일자리 이동상담소 등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광주 동부경찰은 최근 개학철을 맞아 지역 돌봄센터를 찾아 초등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활동을 실시했다. 사진제공=광주 동부경찰서

광주 동부경찰, 학교폭력 예방 교육

광주 동부경찰은 최근 지역 돌봄센터를 찾아 초등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학교폭력에 대해 초등학생들이 알아듣기 쉬운 사례형 교육과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112신고 요령 등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동부경찰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보행 3원칙(서다·보다·건다)을 기반으로 한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교육 등도 했다. 동부경찰 관계자는 “개학철 학생들의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학원이 주변 거점 근무를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대표단 간담회

박만 의원 주축...노동자 정수 조정 등 현안·애로 논의

박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은 24일 의회광주청사에서 ‘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대표단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박경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상임의장과 임인석 광주노동이사협의회회장 등 기관 노동이사 11명이 참석했으며, 현안과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노동자 정수 조정과 이사회 참석에 따른 수당 및 대근로 활동비 지급 등을 요구했다. 박만 의원은 “노동이사제는 2022년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며 이사회에 참례해 발언권과 의견으로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라며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의 조례 제·개정 및 지원책에 대해 심도 있게 살피보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

게시판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일자정양림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사정·이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

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품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돌래지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운세 (음력 7월 13일)

48년생 금반전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라
60년생 재물이 풍부할 필요만 많을 것이라
72년생 귀인이 도와주니 이익이 있다
84년생 달콤한 말은 독약이다
96년생 그 무엇보다도 실속이 있어야 하겠다
51년생 금석지간에 취한 하루가 될 것이다
63년생 긴밀히 살펴봐야 할 일이다
75년생 주변 사람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
87년생 뒷사람 때문에 해를 입으니 조심하라
99년생 본격적으로 시도해도 될 것이다
54년생 가깝던 사람이 원수가 될 것이다
66년생 배우자 이외의 연인은 멀리하라
78년생 돈을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0년생 이상을 주의하라 시기당하기 십상
57년생 난처해질 수 있으나 의연히 대처하라
69년생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말라
81년생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도장 찍으라
93년생 대충 잡아서 되는 일이 아니다
49년생 참으면 화를 면한다
61년생 제3자로 인한 구설수와 관재수 조심
73년생 명예, 지위가 오르며 거래 잘 이뤄진다
85년생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운이다
97년생 목표에 열중하니 계획에 도달하는 운
52년생 어쩔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64년생 과감히 펼쳐버려야 추진력이 생긴다
76년생 효과는 점진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88년생 기대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보인다
55년생 예리한 관찰력에 용의주도함 요청된다
67년생 정신적 피곤함을 주의하라
79년생 직장 때문에 순간 고통이 따르리라
91년생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야 결과가 온다
58년생 애를 먹겠다
70년생 뜻대로 이루어지지기 만무하다
82년생 문제없으니 근심하지 말 것이라
94년생 합격 문서를 취득할 운이 좋다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50년생 다소 언젠가 예상된다
62년생 불순하게 대하면 시비, 구설 분분하다
74년생 꽃이 만개하듯 사랑과 재물이 온다
86년생 새로운 결과가 형성될 수 있는 국면
98년생 꿈을 많이 꾸다
53년생 넓게 보는 안목이 필요할 때다
65년생 이휘 놓고 말해도 늦지 않다
77년생 못지 않은 행운을 잡게 될 것이다
89년생 짝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56년생 부족한 것을 배우자에게 돌리지 마라
68년생 뿌리 대로 거둔다
80년생 의외의 재물이 보이니 기대해 바라
92년생 큰 변동 없는 무난한 하루다
59년생 무의미했던 것이 새 가치를 얻는다
71년생 호기가 주어진다면 취하는 것이 옳다
83년생 소망은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느니라
95년생 혼자 하는 편이 훨씬 편할 것